

# 친환경 작물보호제 시장 2018년까지 연 16% 성장 전망

동부팜한농, 10.26 '그린바이오상생발전 한마당' 서 발전방향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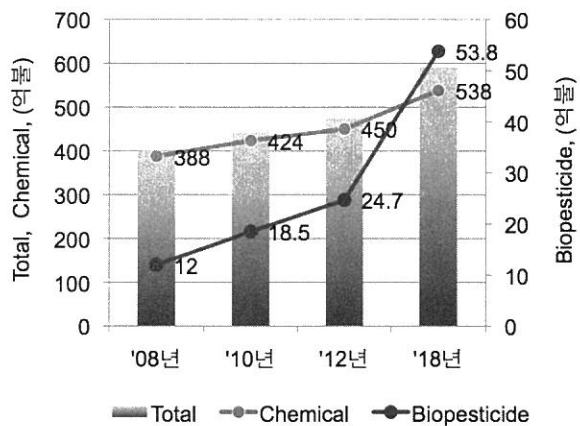
**최** 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바이오투를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 작물보호제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지난 10월 26일 서울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대·중소기업 R&D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포럼인 '그린바이오상생발전 한마당'에서 제기된 것으로서 친환경 작물보호제 개발과 국내 곤충산업 전망 등을 발표하는 한편 그린바이오 분야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이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원장 이기섭, KEPI)이 KOREA바이오경제포럼과 공동 개최하고 한국그린바이오 연구조합(이사장 우종일, 동부팜한농(주) 대표이사)이 지원한 이날 행사에서 동부팜한농(주) 농생명연구소 김경성 상무는 "글로벌 기업들이 바이오 기반 및 종자 사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매출액의 평균 8.8%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다"고 말하고 "전 세계 화학 기반 작물보호제 시장의 연평균성장률이 3%인 반면 친환경 작물보호제 시장은 2018년까지 연 16%씩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상무는 이어 "세계 농업 시장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천연 유래 친환경 작물보호제와 유전자변형(GM)작물 품종을 단계적으로 개발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한 대학과 연구소, 기업체의 산학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작물보호제 시장은 과거 화학 기반 작물보호제에서 1980년 이후 스피노사드 등 미생물대사체 기반의 작물보호제 개발, 2000년 이후에는 클로란트 라닐리프롤 등 천연물 기반 작물보호제로 발전되어 왔다.

이러진 패널토론에서는 '최근의 작물보호제 개발은 생명공학기술(BT),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이 융합돼 천연물, 미생물, 천적 중심의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정부지원뿐만 아니라 각계 각 층의 신념과 의지가 친환경 작물보호제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내용이 논 의됐다. ④



〈 화학 및 바이오기반 작물보호제 시장 전망 〉